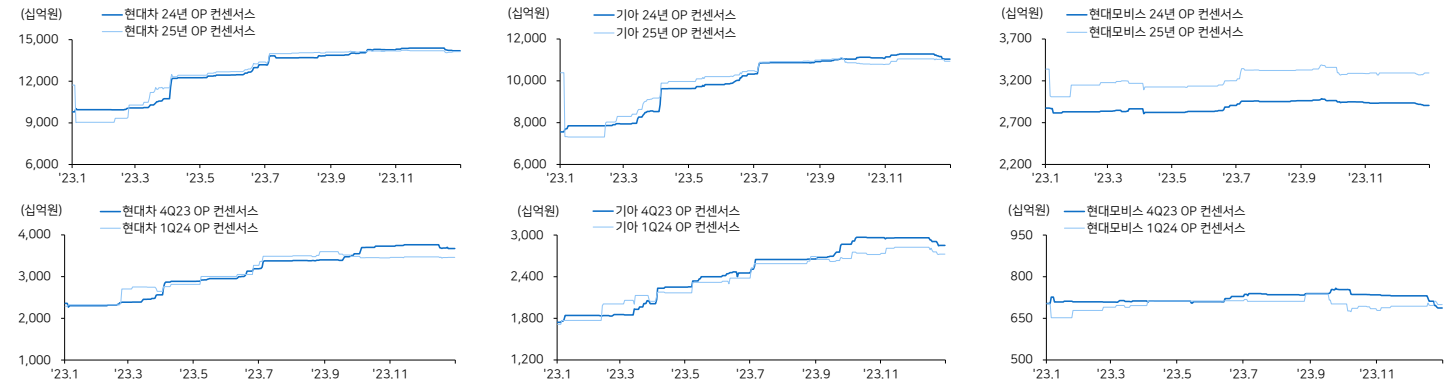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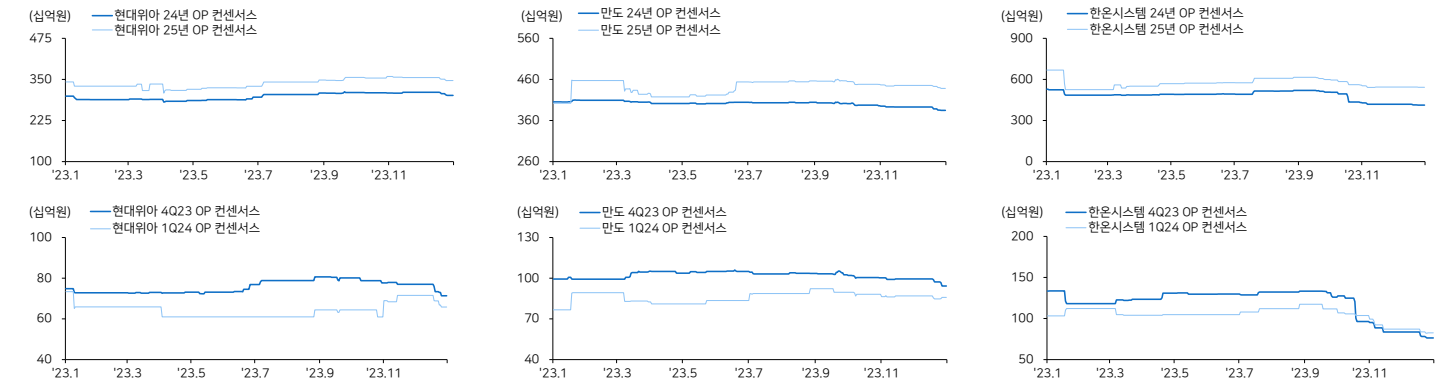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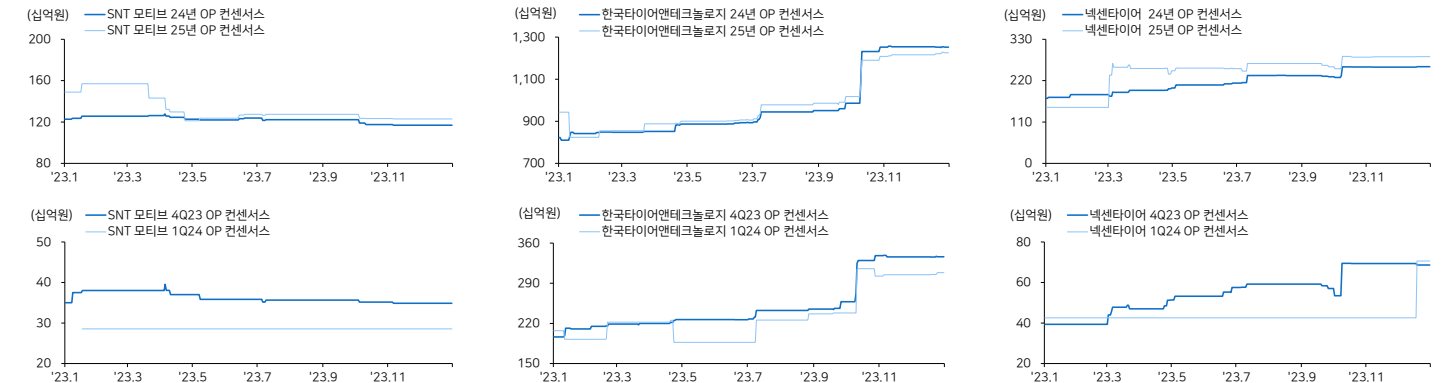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Tesla FSD Beta v12.12 rolls out to customers (Teslarati)

테슬라 FSD 베타 버전 12.12가 SW 업데이트를 통해 고객에게 배포되기 시작. 테슬라는 주행 데이터 스택 (stack)을 수백만 개의 비디오 클립으로 훈련된 단일 End-to-End 신경망으로 훈련하여, 30만 줄 (lines) 이상의 C++ 코드를 대체했다고 설명

<https://han.gl/7i10E>

China vows to rein in capacity in electric vehicle industry (Financial Times)

중국 자동차 수출 및 무역정책에 대한 서방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부문의 확장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힘. 관계자는 수요 환경에 맞게 명목적인 신규 건설을 제한하고 일부 무질서한 경쟁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https://han.gl/GK56>

중야오미 "전기차 소규모 양산단계--1억원 ↓ 모델 중 축소 없어" (연합뉴스)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첫 전기차 SU7의 소규모 양산 단계에 들어섰으며 올해 상반기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증권시보가 22 일 보도. CEO는 50만 위안 (약 9천300만원) 이하 전기차 모델 가운데 샤오미 SU7의 경쟁 상대는 없을 것이라고 자평

<https://han.gl/Nkch1>

Hyundai's New Incentive Beats Out The Model 3 As The Cheapest Electric Sedan (InsideEVs)

현대차의 7,500 달러 인센티브를 적용 시, 아이오닉6 SE의 실질 구매가격은 36,050 달러로 떨어져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의 구매가인 40,630 달러보다 저렴한 가격을 형성. 모델3 구형 제고와 (36,730 달러)과 비교해 낮은 수준

<https://han.gl/PyE5W>

Panasonic puts productivity boost ahead of new EV plant in US (Reuters)

일본 파나소닉이 전기차 수요 둔화 등 상황을 고려해 미국에 건설하려던 3번째 배터리공장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을 언급. 연말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IRA에 따른 지원 정책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

<https://han.gl/m5Zml>

기아, 광명2공장 재가동...EV3·4 본격 생산 나선다 (뉴시스)

기아가 광명 2공장의 전기차 전용 공장 전환 작업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가동을 재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 모델인 EV3와 EV4 생산이 본격화될 방침. 회사는 29일부터 생산적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생산라인 공명 확인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

<https://han.gl/TLLB8>

Dongfeng's NEV brand Voyah strikes strategic partnership with Huawei (CnEVPost)

Dongfeng의 NEV 브랜드 Voyah는 고객의 스마트 모빌리티 경험을 증진하기 위해 Huawe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회사는 Huawei와 다양한 분야에서 차량 개발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대규모 상업적 적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힘

<https://han.gl/r5tV>

Tesla Cybertruck and Model Y production is 'noticeably up' at Giga Texas (Teslarati)

오스틴의 기가텍스에서 사이버트럭과 모델Y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됨. 일요일에 촬영된 드론 영상에 따르면 시간당 평균 8-9대가 대기 중이던 출고 장소에 약 20여대의 사이버트럭 및 수십 대의 모델Y가 목격된 것으로 알려짐

<https://han.gl/c8PpJ>

내년 선보일 현대차 차세대 넥스, 주행 거리 800km 전망 (다구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2025년 차세대 넥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글로벌 소재 기업 WL Gore & Associates와 협력할 방침. 성능은 기존 모델을 크게 앞설 전망으로 주행거리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 497m일 (약 800km)로 예상

<https://han.gl/0X>

Nissan needs to 'clean out the closet' to turn around falling sales with new Evs (Electrek)

AN에 따르면 닛산은 낮은 옷을 벗고 3월 말까지 하라세를 탈피할 새로운 중기 전략을 공개할 방침. 닛산은 중국의 저가 모델에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을 출시하고 네트워크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다룰 예정이라 언급

<https://han.gl/v9gVr>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